

지지 부진 고경산단 MOU 체결했지만...

MOU, 고경산단 새 원동력될까? 사전 분양률 높이기 MOU 의심

2008년 시작돼 10년 가까이 착공 자체가 지지부진했던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주)가 시행·시공자 및 금융사, 투자기업간 MOU(투자양해각서) 체결로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지난 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고경산단 사업시행자인 황만수 영천고경산업단지(주) 대표, 시공사 GS건설(주) 산하 인프라부문 대표 이상기, 윤상준 메리츠증권(주) 금융본부장, 투자사(주)에스지 이사 김윤기 외 3개사 등 모두 8개 기관·사와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시행사 대표 자석의 황 대표는 "여러 악재속에서도 영천시의 도움으로 MOU체결이 가능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투자자들의 선택이 탁월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경일반산업단지 시행사는 영천고경산업단지(주), (주)에스지, (주)가온플러머앤실런트, (주)에이 등 모두 4개 사다. 이날 MOU에서 황 대표가 소개한 투자

사는 (주)에스지, (주)가온플러머앤실런트 등 시행사 2개사와 에서엘(주), (주)조은글라스 등 4개사다.

시공사로 참여한 GS건설(주) 인프라부문 이상기 대표도 "시공사로 참여하게 돼 감사하다"면서 산단 조성에 영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여기서 김 시장은 또 "GS건설 정말 중대한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자원확보에 참여해주신 메리츠증권에 고맙고 특히 이번 MOU를 성사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황만수 고경산단 대표님께도 고맙다"며 이번 MOU 체결이 매우 긍정적인임을 나타냈다.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 시작해 첫 삽도 뜨기 전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10년 가까이 올바른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2016년 12월 새 시행사 변경으로 사업기간을 2018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최초 시행자의 법정관리 후 이어진 PF자금 결렬 등 악재를 벗어나지 못

하다가 이번에 다시 MOU체결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영천시에 따르면 민간투자방식(실수요 30%)으로 추진중인 고경일반산업단지는 총사업비 2,110억원 규모다. 개발용지 1,565천㎡(47만평) 부지에 자동차부품,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제품, 통상장치, 기계 및 장비업체 등 첨단 유망업종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할 예정으로 있다. 녹지, 공원 및 공동주택 등의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MOU는 그동안 담보상태인 고경산단의 새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MOU 체결로 사업의 순항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 산단관련 투자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공사 착공을 감안한 사전 분양률을 높이기 MOU 체결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산단의 순항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사업조성 지지부진으로 현재 고경산단은 용수 및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가 중단돼 있다. 또 시행사측 관계자는 고경산단은 "시설용지의 78.13%가 청약 체결되었다"고 밝혔지만 시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



에 대한 보상율도 79%에 그치고 있어 시행사측이 밝힌 청약률에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MOU 체결 대표성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이날 협약 체결에 나선 영천고경산업단지(주) 대표가 H모씨가 아니라 L모씨로 돼있기 때문이다. 영천고경산단(주)는 올해 5월 30일 대표이사를 L모씨로 변경하는 등기를 종료했다. 그런데 H모씨가 MOU체결 대표로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스스로 "MOU 자체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도 대표이사도 아닌 자가 서명한 MOU 문서는 효력이 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업시행자 고시문에 아직 대표자로 되어 있기에 법인등기를 확인하지 못해 대표이사가 바뀐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직전 대표이사인 H모씨는 현재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혐의'로 대

구지검에 고소돼 있는 것도 고경산단의 새 지지대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나온다. 현재 H모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관계자 측에서는 대표이사도 아닌 자를 그것도 행정기관이 공식 협약 대표로 내 세운 것을 두고 "영천시가 공신력까지 훼손하는 것 아니냐"며 진정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본지 확인 결과, 현재 H모씨는 고경산단과 관련해 형사사건 송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측 한 관계자에 따르면 "H모씨와 현 65억원으로 한 주식 100%(H모씨 지분 50%, 현 대표이사 지분 50%)를 양수양도 계약으로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했으나 지난해 9월 15일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10월 대구지검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구금상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정업무추진비 등 3건에 1억9천100만원 삭감

영천시의회(의장 김순화)는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의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속 등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총 규모 684,208,463,223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일반회계가 6천698억원으로 편

성금액보다 1억9천100만원이 삭감됐다. 삭감 내용은 의회사무국 의정업무지원비인 의장단 업무추진비 등 2건에 4천124만원과 문화체육과 아카데미사 보수비용을 당초 3억원에서 1억5천만을 삭감하는 등 모두 3건에 합쳐 1억9천100만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특별회계는 편성금액 143억9천946억원을 원안 가결했다. 또 하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각각 당초 편성금액 377억원과 468억8천300억원을 원안 가결했다.

김순화 의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계기로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의회 청렴도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원장 **한성협**

다산한의원

개원 9월 12일

진료안내
 통증클리닉 / 비만클리닉
 성장클리닉 / 소화클리닉
 보양클리닉 / 갱년기클리닉

간접의료법
 침구치료(전신)
 시술·약침·대사영양
 순회클리닉
 멀티노출엑스
 영도순환침
 총 60년경험 소수
 100%의 성공률 보장

경북 영천시 역전로 52 (완산동)
T. 054) 338-8891

영천중앙초, 수업도중 개 학교난입 학생 물어

학교유해환경 관리메뉴얼 꼼꼼히 챙겨야



영천중앙초등학교에서 지난 6일 수업도중 목줄이 풀린 개 한마리가 난입해 수업중인 학생 3명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영천시 축산과, 소방서, 학부모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운동장 체육수업도중 보스톤테리어(3세, 검정색, 수컷 몸무게 7kg)종 개 한마리

가 학교에 난입해 수업중인 학생 김모군 등 3명을 잇따라 물어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개는 무서워서 고함을 치며 도망가는 학생들을 뒤쫓아 다니며 학생들에게 덤벼들어 눈과 귀 등을 물어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고 관계자들이 증언했다.

이날 사고당시는 학교의 점심시간과 겹쳐 있었다. 또 학교에서는 학부모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학교장은 이같은 사고소식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해당 초등학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수막을 내걸고 애완견 교내 출입을 일체 허용하지 않음 방침이다"고 밝혔다.

손흔익 기자

<1면에 이어>

반면 고경산단 측 관계자는 "당 사건(65억원으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은 고경산단의 주식에 관한 사안으로 회사의 이익금에 대한 배분 문제이지 이 사업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영천고경산단(주)은 2015년 9월 3일 자본금 5,000만원에 당시 대표이사 황만수로 하는 신설 회사다.

이 관계자는 또 MOU 체결 대표로 나선 H모씨가 고경산단의 대표이사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MOU 체결에 따른 금융사와 시행사는 대표이사가 직접 사인을 해야 하지만 대리인

이 나설 경우 앞서 위임장을 붙이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면서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MOU 등 협약에는 H모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고경산단의 대표이사 변경신고는 경북도의 승인고시를 받았느냐"는 본지의 질문에는 "대표이사 변경은 살피지 못했는데 오늘 MOU를 하고 GS 등 시공자 확정됐으니 이제 우리가 변경신청을 경북도에 할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경신고는 누가 하느냐"는 질문에는 다시 "고경산단측이 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2017년 지방재정 공시 지난해 살림규모 9,417억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지난달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공개하는 2017년 지방재정공시를 시행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지방재정 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공통공시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공시하는 특수공시로 이루어진다.

이번 지방재정공시는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이에 따르면

지난해 영천시 살림규모는 자체수입, 이전재원, 지방채·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을 포함해 9,417억원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1,176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영천시의 재정규모가 비슷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인 6,745억원보다 2,672억원이 많은 수치다.

이밖에 자세한 공시 내용은 영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기 기자

'채소류(마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국비 30억 확보

총사업비 100억원 중 올해 사업비 40억원 투입 사업주체 신녕농협, 자부담 16억 지원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와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채소류(마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영천시가 밝혔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여기에는 도비 9억원과 시비 21억원 및 사업주체인 신녕농협 자부담 40억원이 포함된다. 따라서 1차년도 올해는 국비 12억, 도비 3억6천만원, 시비 8억4천만원, 신녕농협 자부담 16억 등 모두 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영

천시는 영천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에 8억4천만원을 신청했다.

과수한방과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천시는 도내 최대 마늘(대서종) 주산지인 타지역의 마늘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영천시 생산량(26천톤)은 꾸준히 증가해 전국 비중 8.8%, 경북 비중 44.1%를 차지한다.

하지만 생산량에 비해 저장시설이 부족해 수확기 홍수출하, 노후 저장시설 이용에 따른 감모율 증가 등으

로 마늘 수급 안정화와 농가소득 보전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녕농협을 사업주체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된 것.

영천시는 신녕농협이 이번 사업을 통해 건립하게 되는 마늘 출하조절센터를 상주영천고속도로 반경 500m 내 물류요충지인 신녕면 화남리 일대에 14,366㎡ 부지를 확보하고 저온저장시설 3,300㎡, 예건시설 660㎡, 깎마늘가공공장 990㎡, 기타 부속시설 330㎡로 건립할 예정으로 9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18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이만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마늘 수급조절이 마늘농가 소득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생식용 깎마늘 주산지인 영천에 본 사업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농식품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본 사업유치에 큰 역할을 했다.

'채소류(마늘) 출하조절시설 사업'은 노지채소류 중 생산·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한 품목(무, 배추, 마늘, 양파, 생강 등)에 대해 산지에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저온저장시설과 예냉시설, 가공시설, 위생설비, 장비 등 출하조절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손흔익 기자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미리 출발 현실성 있고 완성도 높은 업무계획 기대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지난 4일부터 국별, 업무 관련부서 간 합동으로 '2018년도 영천시 주요업무보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부업무보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정책방향에 맞춘 국정과제 대응전략, 미래성장산업, 신규 프로젝트사업 등으로 추진된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 간 합동보고로 계획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사업추진 논의와 협력, 협의, 소통으로 사업추진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보완돼 더욱 현실성 있고 완성도 높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2018년도는 주요 사업들이 차근차근 마무리되고, 영천시를 더욱 성장시킬 미래 먹거리 사업들로 채워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공직자들은 흐트러짐 없이 중심을 잡고 오로지 영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2018년도는 주요 사업들이 차근차근 마무리되고, 영천시를 더욱 성장시킬 미래 먹거리 사업들로 채워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공직자들은 흐트러짐 없이 중심을 잡고 오로지 영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국가대표 세팍타크로 선수단 영천 방문 최적의 전지훈련지로 주목



세팍타크로의 종주국인 태국에서 방한한 국가대표 세팍타크로 선수단

(단장 분차이 톨피랍) 18명과 대한민국 세팍타크로 선수단 23명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영천체육관에 등지를 틀고 열띤 훈련을 시작했다.

8일에는 태국의 분차이 톨피랍 세계세팍타크로연맹 부회장과 이태규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을 비롯한 6명의 회장단이 영천시청을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분차이 톨피랍 부회장은 "영천의 우수한 훈련시설과 청명한 날씨 덕분에 훈련성과가 높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세팍타크로의 본고장에서 오신 만큼 기대가 크다. 우리나라 대표팀에도 멋진 기술과 유용한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이용기 기자

북영천역 임시승강장 운영

대구선 북선전철화공사에 따라 현재 북영천역을 폐쇄하고 북영천 임시승강장을 운영한다.

운영은 8일부터 시작해 약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임시승강장은 북영천역에서 북쪽(신녕·청송) 방향으로 700m 직진 후 좌회전(청송식당) 위치에 설치된다.

영천역관리역 관계자는 "대구선 북선전철화공사에 따라 북영천역 승강장을 이전 운영하니 임시승강장을 통해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054-333-1500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기 기자

2017 경북동호인 축구대회, 3일과 10일 양일간 열전

대구·경북 10개시·군 15개클럽, 영천 13개클럽 여성 4개팀



경북도내 축구 동호인들의 화합을 위한 '2017 경북동호인 화합 축구대회'가 지난 3일 경북 10개 시·군에서 경북 13개클럽, 대구 2개클럽, 영

천 13클럽 등 대구·경북에서 모두 28개 클럽과 여성 4개클럽 등 4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영천단포축구공원에서 개최돼 3일 열전에 들어가

오는 10일을 포함해 양일간 펼쳐진다.

이 대회는 당초 지난해 '영남일보 사장기 제1회 전국축구동호인 대

회'로 시작했다가 올해는 '2017 경북동호인 화합 축구대회'로 이름을 바꾸어 영남일보와 영천시체육회가 공동주최하고 영남일보와 영천시축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치루어졌다.

대구·경북 10개시·군에서 15개 클럽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특별히 영주, 포항, 칠곡군에서 여성축구클럽이 참가해 청년부와 함께 영천육군3사관학교 연병장에서 화합의 열전이 벌어졌으며, 영천단포체육공원에서는 노장부와 장년부 대회가 열리는 등 모두 40개팀으로 구분해 오는 10일까지 양일간 화합제전에 들어갔다.

이날 영천단포축구공원 개막식에는 김영석 영천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김순화 시의회 의장, 김수용 도의원,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 전종천·김영모·김찬주 시의원, 윤인지 영천시축구협회장, 축구동호인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 제1회 전국동호인축구대회 개최 때 참가한 경험이 있는 전북 진안50클럽이 유일하게 번의 팀으로 참가해 지역 동호인들과 우정을 나누었다.

한편 이날 첫날 대회결과 3사관학교 총성연병장에서 펼쳐진 여성 대전에서는 포항 포비아성축구클럽이 우승을 차지했다. 영천 여성축구클럽은 공동 3위에 머물고 남상 축구와 함께 대부분 지역 팀들은 열세를 만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남자축구 청년부에서는 경산 무학, 영천 SM, 포항 유나이티드, 영천 조광 클럽이 4강에 안착했고, 장년부 경기에서는 대구 비슬, 영천 강중, 포항 유나이티드, 에스구미 클럽이, 또 노장부에서는 안동 하회탈, 경산 50(오공), 김천 동심, 대구 북오 클럽이 각각 4강에 올라 10일 이곳에서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손훈익 기자

한영철 국제로타리 3630지구 총재 공식방문

영천RC·목화RC공식방문 합동주최

국제로타리 3630지구(경북) 2017-18년도 한영철 총재(영주중앙로타리클럽)가 지난 4일 영천을 공식 방문했다. 한 총재의 이날 방문은 영천로타리클럽(회장 박인환)과 영천목화로타리클럽(회장 김소은)이 마련한 한영철 총재 공식방문 합동주최 첫 발걸음이다.

이날 합동주최에서는 한영철 총재를 비롯해 한승훈 전 총재, 영천클럽 회장단 및 회원, 선인장 회원, 영천목화클럽 회장단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로타리, 변화를 만들자'는 2017-18년도 국제로타리 테마를 되새겼다.

스타컨벤션웨딩 3층에서 열린 이날 합동주최회에서 한 총재는 "내년이면 창립 50년을 맞는 영천클럽의 전통을 되살려 전국 최고의 지

역 로타리로 거듭나자"면서 회원 100인 클럽 달성을 목표로 더욱 분발하는 영천클럽이 되기를 희망했다.

한 총재는 또 영천목화클럽에 대해서도 "여성의 섬세함을 되살려 지역봉사에 더욱 매진하는 클럽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환 영천클럽 회장과 김소은 목화클럽 회장도 "로타리의 기본정신에 충실하자, 내 고장 영천을 만들기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면서 각각 환영사와 인사로 총재의 공식방문을 환영했다.

이날 합동주최에서 대구대·성덕대·영천성남여고·영천고·선화여고·영천상업고에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다.

황정욱 기자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및 간담회 개최



영천시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가 지난 29일 영천시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위촉 및 간담회에서는 청렴 영상 시청을 통해 청렴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청렴 영천 실현 및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영천시 청렴시민감사관은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지역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우며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과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들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각 1명씩 16명이 위촉됐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 공무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영천시 열린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다.

조남월 영천시 부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은 시민의 모범이 되는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하며, "민·관 감찰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청렴한 영천시를 만드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영천시 공직자들이 청렴 교육 및 청렴서약 등 다양한 청렴시책으로 청렴한 공직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언급했다.

영천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민원인 친절응대, 직원 청렴도 향상 교육 등을 집중 실시하고 청렴해피콜을 통한 전화설문 실시로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 업무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기 기자

제22회 왕평가요제 예심 안내

- 접수기간 :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15일(금) 18시 까지
- 예선일시 : 2017년 9월 16일(토) 13시
- 예선장소 : 영천시교육문화센터 공연장
- 참가자격 : 만16세이상~ 6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누구나
 - * 정식가수로 등록된 자와 음반발매 한 자는 제외 함
- 참가곡 장르 : 대중가요에 한 함
- 신청방법
 - 대구MBC홈페이지 신청 및 서식다운
 - e-mail 접수 : 01000art@naver.com
 - 카톡, 문자접수 : 010-5659-6640
 - [문자접수-이름, 나이, 거주지역, 참가곡, key 반드시 명시 하여야 함]
- 준비사항
 - 창작곡 일 경우 반주CD와 악보 6부 지참
 - 기성곡MR 참가자는 MR에 보이스 코러스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본 선 : 2017년 10월 2일 오후7시
 장소 : 영천강변공원특설무대
 주최 :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영천지회
 주관방송 : 대구MBC
 후원 : 경상북도, 영천시

*시상내역 : 대상 700만원을 포함한 총상금1690만원과 대상/금상 가수인증서 수여

“영천시의회, 예산심사는 주민에게 물어봐야”

권호락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미쳐도 그렇게 미쳐서는 안돼”

이상근 부의장, “주민, 안된다 ⇒ 삭감, 된다 ⇒ 부활”



영천시의회가 갈 길이 멀다. 지난 제186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에서 의원 간 갈등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산업건설위(위원장 정연복)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위원장 박보근)에서 주민들의 항의로 되살려 주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권호락 의원(나 선거구)은 이를 두고 “예산결산위원회 미쳐도 그렇게 미치면 안 된다”며 예결위를 강하게 비토하고 앞으로 상임위는 필요 없다. 예산은 주민들과 상의해 결정해라”면서 직격탄을 날려 의원간 갈등이 또다시 증폭됐다. 이같은 갈등은 지난 7대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래 좀처럼 사그러 들지 않고 특하면 수면위로 올라온다.

발단은 산업건설위에서 삭감한 건설과 소속 청통 우천1리 농수로정비공사비 1억5천만원이다. 당초 이 예산은 산업건설위(위원장 정연복, 간사 박보근, 위원 권호락·이상근·이춘우 의원)에서 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급하지 않는데다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순수 시(市)비로 할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도 있게 심사해 삭감한 예산이다.

우천1리 이장과 일부 주민들(새마을, 개발위원)은 “농수로 정비보다 더 시급한 5건의 사업이 있는데 농수로정비를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천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줄려면 더 급한 5건도 함께 해결하라”면서 의회를 압박한 원인이 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로 작용했다. 하지만 다음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보근, 간사 김찬주, 위원 전종천·허순애·이상근·정연복 의원)에서 이 삭감된 예산을 되살려줬다. 문제는 되살려간 이유다. 예산이 삭감됐다는 소식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해당 지역 주민들(신덕1리주민) 15여명이 허순애 의원실로 찾아와 “30년 숙원이다 예산을 살려 달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들은 만약 예산을 주지 않을시 “2차 적으로 플랜카드를 걸고 추가행동에 들어가겠다.”며 허 의원실에 자리를 차지하고 거친 항의를 이어갔다. 허 의원은 “이번에는 어렵다, 다음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주겠다”면서도 “예결위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으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했으나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텼다. 이 때문에 예결위 예산심사가 1시간30분가량 지연됐다. 심지어

어 이상근 의원은 “우천1리 대표자를 수배해 와서 상의하라는 등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제안도 했다. 결국 해당 우천1리 대표주민이 와서야 신덕1리 항의주민들과 합의에 이르고 예결위는 이 예산을 되살려준 것이다. 한때 예산이 되살아나자 신덕1리 주민들은 허순애 의원실에서 승리의 박수를 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종결되자 권호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세상에 이런 의회도 있느냐? 이럴 것 같으면 상임위가 뭐 필요하나, 상임위에서 자신들이 삭감하고 또 예결위에 가서 자신들이 되살리는 이런 의회도 있느냐”면서 상임위 무용론까지 나왔다. 여기에 대해 이상근 부의장은 삭감 사유와 되살린 사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동내 이장이 더 바쁜 사항이 있는데 왜 이걸(농로정비) 먼저 해 주느냐?는 민원이 있었고 별다른 대책도 없어 삭감했다”면서 또 “삭감해 놓고 나니 반대쪽 주민들이 찾아와 이 길은 우리가 사용하는 길인데 왜 삭감하느냐는 민원이 또 있었다. 그래서 양쪽이 합의해 다시 되살렸다”고 말했다. 이상근 의원은 “우천1리 이장이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삭감했고 다시 우천1리 이장이 와서 신덕1리 주민들과 합의해 예산을 살려주어도 된다고 협의가 이루어져 되살려주었다”는 해명이다.

이같은 예산심사 논쟁에 의원들 간 갈등이 극하게 심화하고 있다. 앞서 산업건설위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예산심사당시 해당지역 의원도 면장도 모르는 예산이 편성됐다는 이유로 1차 삭감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거기다가 일단 예산은 되살려주고 일단락되었지만 박보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은 “집행부 담당이 와서 예산의 필요성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항의한다고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 삭감한 예산을 되살려준 것은 의회 예산심사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고 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호락 의원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선 간담회장에서 “이번 예산 통과에 의원들 스스로 의원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 사표를 내야한다. 예산을 이렇게 심사할 것 같으면 산업건설·운영위·총무위원회 예산도 모두 주민들 불려서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원장인 박보근 의원은 “심사를 맡은 위원장으로서 많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숙고해 예산을 심사했다”면서도 정작 법정 의무비용인 의회 의정업무 지원비를 또다시 삭감 처리해 예산심사의 허구성을 노출시켰다.

장지수 기자

유림재현관 예산, “집행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의원, “공모 없이 민간위탁결정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위반” 질타

유림재현관 건립 예산과 관련해 ‘이상한 예산 편입인가 불법인가?’ 의회까지 논란?이라는 본지 제214호 1면 기사와 관련해 집행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회에 사과했다.

영천시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과장 손동열)는 지난 5월 제186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앞선 사전 간담회 자리에서 “도비는 받았는데 담당자가 표기를 잘못해 일어난 일이다”면서 이같이 사과했다. 앞서 해당 부서는 유림재현관 건립예산과 관련해 의회에 도비 6억원과 시비 6억원 그리고 자부담3억원(합계 15억원)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시 예산서 부기명에는 모두 시(市)로 돼있다. 이날 간담회장에서 이춘우 의원은 “유림재현관 짓기 위한 돈 그것 아니라도 해당 사업에는 특별조정교부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묻고 “예산서 부기명과 의회 보고가 다른 것은 우리의회를 바보로 만든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실 예산부서 관계자는 “도(道)에서 시 담당부서

(문화체육과)로 예산 세울 것을 요청해 왔고 담당 부서는 기획실로 그래서 기획실과 도가 협의해 도비를 받은 것이다”며 도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결국 도비를 받아 시비로 부기명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다시 “기획실과 문화체육과의 보고가 다른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도가 시군간 형평성을 이유로 몰래 도비 내려주고 대신 우리보고 시비 투입해라는 것이었냐? 사전에 도의원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도의원이 모른다고 하고 있다”면서 더 강하게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손동열 담당과장은 “유림장과 유림재현관을 묶어 도지사님이 전체 균형차원에서 생각하신 것 같다. 경북 동남권에 유림관이란 큰 틀에서 생각해 예산을 내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유림재현관을 사)송계선생기념사업회에 민간위탁 결정할 것을 두고도 질타를 계속했다. 이 의원은 “기부채납 돼 있다고 특정

단체에 위탁을 주면 되느냐? 엄연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이다. 민간위탁은 공고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김영모 의원은 “A 의원이 오늘 간담회에 안 나온 이유를 알겠다.”면서 해당 의원에 대하여 유림재현관 건립과 관련이 있다는 듯 뉘앙스를 남겼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7년 4월 의회에 영터리 보고한 것을 두고 이거 어떻게 할라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그냥 이름만 바꾸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부기로 사업하면 되느냐?”고 얼굴까지 붉히며 질타했다. 결국 기획예산부서인 이종규 기획감사실장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결국 타 시군을 의식해 도비 받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 도비는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대체사업비 명목으로 의회까지 속여 가며 시비로 부기명을 둔갑시킨 것”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상공회의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노동현안 간담회



영천상공회의소(회장 송재열)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이 현장소통을 통한 기업애로 청취와 지원을 위해 지난 7일 영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송재열 회장, 이태희 청장 외 관계기관, 상의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산재처리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기업에 한발 더 다가가는 시책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식적인 간담회 시간을 지나 도시락으로

대신한 오찬자리까지 열띤 토론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나왔다.

송재열 회장은 “최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등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사와 정이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게 돼 의미가 깊다.”고 했다.

이태희 청장은 “영천은 자동차 관련 기업이 많은데 최근 대외여건 악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노동청에서는 기업의 애로점을 겸허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용기 기자

〈노컷〉 의회 본 회의장서 무슨 일이?

〔바른정당 <대> 자유한국당?〕- 전종천, “의안 상정절차 있었나” <대> 김영모, “의회 안 나오니 모르지…”

본 기사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실명으로 보도한다. 지난 영천시의회 제 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의원 간 설전내용이다. 영천시의회 제7대 후반기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의회 화합은 없었다고 본지는 단언한다. 남은 임기를 약 9개월여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영천투데이’(YCT)는 앞으로 가감 없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 다음 선거에서 시민들은 선택의 기준을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능하면 공익성과 독자의 바른 알권리를 위해 실명으로 가고자 한다. 판단은 독자와 시민 여러분의 몫이다. =편집자 주=



김영모 의원 (바른정당)



전종천 의원 (자유한국당)

지난 28일 영천시의회 제186회 임시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임시회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다. 이번 임시회에 영천시는 정부 일자리추경을 포함해 일반회계 540억원, 특별회계 1억9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7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억원 등 모두 589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지방세 수입을 추가 재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자리창출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집행부의 추경예산 편성 제안 이유다.

그런데 임시회 첫날부터 시의원들은 예산(안)심사에는 소극적인 반면 본회의 의안상정 절차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거기다가 또 정상적인 공적서류도 아닌 특정 참고서류 오타(숫자 2를 1로 표기)를 두고도 의회 사무국을 질타하는 등 상식 이하의 지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참석 공무원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이 모두가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임시회 첫날 회기결정과 집행부 이번추경(안) 제안설명 등 대부분 상정안건이 일사천리로 진행 되는가 싶더니 상임위원회 위원사·보임 건에서 전종천 의원이 이의를 걸었다.

상임위 사·보임 건은 김영모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을 사임하고 총무위원으로 변경하는 건이다. 이는 앞선 총무위원회(이하 총무위)간담회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하고 특히 당사자인 김영모 의원도 인정했던 사안이다.

대부분의 집행부 사임들이 산업건설위(이하 산업위)에 출려하는 만큼 의원들 대부분이 산건위를 선호하는 추세다. 따라서 김영모 의원도 굳이 총무위로 옮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모석쪽 부의장 의원직상실 후 총무위(4명)와 산건위(6명) 의원수 불균형을 이유로 총무위원장인 김찬주 의원이 산건위에서 1명이 총무위로 옮겨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땅히 옮기려는 의원이 나서지 않자 김찬주 총무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김영모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또 김 의원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모 의원의 양보로 보이는 부분이다.

따라서 김찬주 총무위원장은 후속 조치로 총무위 간담회를 소집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의원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를 근거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춘우 의원)에 회부됐으며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사당으로부터 구두로 김영모 의원의 사·보임 안건을 본회의에 정식채택 하겠다는 보고를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전종천 의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전종천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본회의장에서 “8월21일 운영위에서 전체의사일정 채택 때 이 안건은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본회의안건에 올라왔느냐”며 따져 물어 순식간에 본회의장이 긴장과 침묵모드에 빠졌다. 김순화 의장이 “사전 간담회 등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해도 전종천 의원은 “간담회 후 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안 들어와 있었다”고 잘라 말하고 “절차상 맞지 않다고 맞박았다.”

이어 전 의원은 또 “총무위원장도 저(전 의원)에게 한마디도 없었다. 간담회는 사전 참고용이고 정상회의절차가 아니다”면서 이번 5안(김영모 의원이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사·보임 건)은 운영위원회에 빠졌고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재차 강조하자 김 의장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언급이 있을 줄 알고 있다”면서 전 의원의 발언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여 본 회의장 분위기가 대결구도로 변해갔다.

그러자 전종천 의원은 이춘우 운영위원장을 향해 “이 안건의 의결이 있었습니까?”라고 묻고 이춘우 의원은 김순화 의장에게 “발언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허락을 얻어 해명을 나섰다.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서 의사당당이 구두로 정상적인 안건으로 채택하여 넣는다고 보고했다”고 전종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자 김순화 의장은 이춘우 운영위원장의 답변에 힘입어 “의사당당이 정상 안건으로 넣는다고 운영위원장에 보고했다는데 전종천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되물었고, 여기에 전종천 의원은 “그래도 당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며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또 “정연복 의원과 이야기해 봤는데 보내는(김영모 의원을 산건위에서 총무위로) 입장에서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도 모른다. 김찬주 의원이 전화해 가꼬 처음에는 이상근 의원보고 오라니까(총무위로) (전종천=그대로 이야기하께요 라며) 이상근 의원에게 전화해 이야기하니까 이상근 의원이 오는것(총무위로) 정기택 의원이 싫어했다. 그래서 못 오는거고. 또 나머지는 저도 김영모 의원이 오는 것이 싫다”고 발언해 분위기를 싸늘한 정면 대치국면으로 몰아갔다.

분위기가 험해지자 김순화 의장은 잠시 정회를 하려 했으나 이춘우 의원이 재차 “1분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면서 “여기운 영위원(전종천 의원포함) 6명이 모두 계시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다만 이춘우 의원은 “전종천 의원 말씀은 그 전자 운영위원회 절차를 밟기 전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 같은데 그~~그~~운영위원회에서는 전혀 절차상 문제

가 없었습니다”고 재차 강조하고 “이상입니다”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전종천 의원은 이번에는 “회의기 본이 안되었다”면서 엉뚱한 발언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아니~정회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안건이 채택되고 안 되고 가 문제가 아니고 기분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원 간 소통이 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채택 되었다고 공포도 해야 하며, 의회전체 의사일정은 많은 논의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 간담회는 그냥 논의자리다. 정상적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운영위원장이 절차상 하자 없다고 하니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면서 말 꼬리를 낮추었다.

그러나 전 의원은 또 이어서 “앞으로 이런 채택에 있어서는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모르는 그런 일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전화해서 ~~뭐~이런 영천시의회가 개인 사모임도 아니고 무슨 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지적이다”며 종결하는 듯 했으나 연이어 “제가 한 개 더 이야기하는데”라며 의회 사무국이 의원 개인에게 참고용으로 배부한 용지를 들어 보이며 “제2회를 제1회로 쓰고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의회 회의를 하는 겁니까”라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계속해서 “누구 한사람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무슨 회의장에서 회의 한다는 겁니까?”며 분위기를 다시 싸늘하게 지속 시켰다.

그러자 참다못한 김영모 의원이 나서서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며 김순화 의장으로부터 허락을 얻고 강한 톤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여기 5호안에 대해 우리 시의원님들 모르는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모르는 분은 그만큼 의회 참여를 안 했다는 반증입니다”고 말하자 도중 전종천 의원이 “아니 회의에서 본인이야기만 하면 되지”라며 끼어들었다.

그러자 김영모 의원은 “의장님 제가 의사 진행발언중입니다. 발언권 얻어 발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며 끼어드는 전종천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래도 전종천 의원은 그 와중에도 “발언 중이라도 그렇지만 운영위원들이 몰랐다는 것 말이 되나? 말 안 되는 이야기 하면 안 되지”라며 김영모 의원의 발언도중 이중으로 끼어들기를 반복했다.

그러자 김순화 의장이 “전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라며 만류했고 계속해서 김영모 의원은 발언을 이어갔다.

여기서도 김영모 의원은 “지금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의회를 균형잡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협조는 하지 않고 누구는 싫다, 누구는 좋다면서 여기 의회가 개인의 어떤 욕심으로 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단호함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어 “자기가 참여 안한 것은 반성은 없고 남 탓 하는 자입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가 반성 좀 하시고 시민들로부터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꾸려고 노력 좀 해야 합니다”며 목소리 강도를 높여 나갔다.

또 김 의원은 의회 참여는 안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전종천 의원을 의식하며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자 전종천의원도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는 전체 의원들하고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는 이유는 했던 말을 거짓말 하고 약속했던 말을 어기기를 밥 먹듯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자에 있었기 때문이다”면서 불평이 김 의원과 전 의원 간의 언쟁으로 비화됐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끝까지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본인 반성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5안에 대해서는 아마~~그~~운영위원장의 절차상 하자 없다는 사실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 합시다”면서 김 의장에게 정회를 요청하고 김 의장은 그제 서야 “10분간 정회하겠다”며 회의가 중간 단락됐다.

한편 이어진 정회 중 간담회장에서는 이춘우 운영위원장이 전종천 의원에게 “당시 운영위원회에 전 의원님도 계시지 않았느냐”고 반문 했고 전 의원은 “제가 잘 못들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날 제 5호안(김영모 의원 총무위원 선임 건)은 정회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아무런 이견도 없었다는 듯 만장일치로 의결 처리됐다.

[본 기사는 개인 의원을 폄하하기 위한 기사가 아닙니다.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의회본회의장 모습입니다. 오직 독자의 바른 알 권리를 위해 실명으로 게재함을 알립니다.]

[정리=장지수 기자]



70살 내친구와 추억의 수학여행

할매할배의날 소통 사랑방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지난달 26일 할매할배의 날(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맞아 관내 어르신 및 청소년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대공감 '소통 사랑방' 마지막 회기로 『70살 내친구와 추억의 수학여행』을 실시했다.

지난 4월부터 운영된 소통 사랑방은 어르신과 청소년 1대1 멘토링으로 진행되어 4월에는 첫만남 얼음깨기, 5월에는 함께 조를 이뤄 음식 만들기 체험의 울 할매의 부엌, 6월 현충의 달에는 영천 메모리얼파크 견학 및 시가전의 서바이벌 체험, 7월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과 농촌봉사활동 등 매 회기 월별로 다른 주제로 운영됐다. 이번 마지막 8월 행사는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친해진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추억이 될 추억의 수학여행을 진행했다. 경주시에 위치한 추억의 달동네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양동마을을 견학하고 체험활동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어르신들과 함께 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지금 나와 같은 어린시절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같이한 추억의 수학여행으로 이야기 할 꺼리가 생겼다."며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가하고 싶다"고 전했다.

손훈익 기자

영천공설시장 별빛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과 위수탁 계약

영천시가 예산범위에서 지원, 안전의무 수탁자가 책임져야

영천공설시장 별빛영화관 위수탁관리 협



천시와 수탁자 간 3대7로 나누며, 영화관 1년 운영 후 연간수입지출 결산을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해당 부서가 영천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다만 수익금 중 일부는 지역사회에 환원할 방침

이다.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지난달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영천공설시장 별빛영화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선태)과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했다.

영천공설시장 별빛영화관은 현재 영천공설시장 2층 만남의 광장 자리를 리모델링해 10월 개관계획으로 마무리 작업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은 총 76석(장애인1석) 1개관 규모로 3년간 관리 운영한다.

영화관 운영인력은 영천시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으며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일반영화(2D) 5000원, 입체영화(3D) 8,000원으로 정했다. 향후 2D에 대하여는 2018년부터 6,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수익분배와 관련해서는 흑자시 영

이다. 협약식에서 김영석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영화관을 운영하고, 영천공설시장과 연계하여 재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시민들의 대표적인 문화여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선태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영화관의 영사기, 음향장비 수준이 대도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여건의 영화관"이라며 "영천공설시장 별빛영화관의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현재 전국 21개의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다.

황정욱 기자

‘제1회 나라사랑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 개최

(사)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 운영위원 회의

(사)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회장 권오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안보교육체험관(이성가실)에서 운영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석 영천시장,

권오수 (사)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장, 김형태 영천지부장, 각 지역별 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6.25전쟁 영천대첩 기념해

‘제1회 나라사랑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를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체험관 일원에서 9월 23일 개최한다.”며 (사)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 운영위원들에게 홍보를 당부했다.

손훈익 기자



영천에서 경북 GAP시설 담당자 교육

농관원 영천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외인학교 교육장에서 2017년 하반기 GAP관리시설 담당자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농산물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등) 유입을 차단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가(농관원)에서 관리시설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에는 김영석 영천시장과 안병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장을 비롯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각 지역 GAP관리시설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영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영천시에는 금호농협, 영천시친환경영농조합, 대구경북농금농협 화남사무소, 산지마을양과영농조합법인 등 4곳에 GAP시설이 지정돼 있다.

손훈익 기자

장애인 교통안전 캠페인 경북 순례

교통3행 추방 캠페인... 음주·안전띠·졸음운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협회장 김탁환)는 지난 6일 '2017년 장애인 교통안전 경북순례 캠페인'을 영천시에서 진행했다. 캠페인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첫날은 안동·영주·봉화 등지에서 실시했으며 2일째인 5일은 영덕·청송을 거쳐 3일째인 이날 영천에서 실시한 것.

이번 영천캠페인에는 경북협회 순례단 12명(단장 예천군지회장 이완희)과 영천시지회 회원 등 모두 35명이 참가했다. 이날 영천시청을 출발한 순례단은 동부사거리를 출발해

시청오거리, 완산시장 삼거리 등 국민은행 오거리 구간까지 차량을 이용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시민들이 교통안전의식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했다.

경북교통장애인협회는 "2017년 장애인 교통안전 경북순례 캠페인"의 목적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장애인이 직접 경북지역을 순회하며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실시해 국민이 함께 교통사고 줄이기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고 밝혔다.

손훈익 기자

황금알 한의사 김오곤, 100세 건강 재테크

경북여성아카데미

경북도와 경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영천시 교육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김오곤 한의사의 '행복한 건강 재테크' 특강으로 2기 경북여성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석 영천시장, 김춘희 경북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강순옥 경북도 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 김판덕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 경북도 시·군 여성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오곤 한의사는 '행복한 건강 재테크' 특강에서 피로와 스트레

스에 지친 우리의 몸을 지키는 자기건강 유지 비결과 한의학을 통한 체질에 맞는 건강관리법 등을 노래와 함께 특유의 유쾌하고 재미있는 강연으로 진행했다. 강의에 앞서 김오곤 한의사는 1950년대 히트곡 가수 백설희의 '봄날은 간다'를 열창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경북여성아카데미는 여성의 참여 확대 및 다양한 역할 수행을 위해 지역 여성들의 역량개발과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한 여성리더 발굴 및 양성이 목적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전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경북도 여성 단체가 경북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



을 담당해 달라.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손훈익 기자

(주)대엘레미콘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하로길 48
전화: 054) 335-6010, 팩스: 054) 335-6014

지역 건설 산업을 선도하는 '레미콘' 제조 전문 기업
대엘레미콘은 늘 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주)대경레미콘 054) 955-7700 (주)대영레미콘, (주)대영아스콘 055) 532-8620 대경골재(주) 054) 955-7534
경북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618-47 경남 창녕군 대지면 미산길 3-24 경북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618-47

대한민국의 청년창업!

청년창업사관학교가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들보가 될 청년창업가를 찾습니다

청년의 **꿈, 맘, 믿음** 그리고 **꿈**

SBC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혁신적인 청년CEO 양성을 위하여 창업계획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과정을 일괄 지원해 드립니다.

학교소개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업가정신을 제대로 갖춘 도전정신이 넘치는 우수CEO를 길러내는 목적으로 2017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교하였습니다.

▶ 창업 초기 특약사항 -> 창업 초기 정부서적 One-Stop 연계지원 제도 활용

청년 기술창업활성화 + 청년일자리 창출 + 중기 CEO 고령화 해결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 (11년 3월)

▶ 지원사항

- 지원대상: 30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미만인 자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 업종(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1단계 사업준비: 3개월	2단계 개발단계: 3-6개월	3단계 출입준비: 3-6개월
입고 > 개발 계획	기술 개발 > 시제품 제작	시장생산 마케팅 > 출업 연계지원

▶ 지원내용

개발자금 총사업비 70%, 1억 이내 보조금	창업공간 창업 사무실, 제품 개발실 등
창업교육 기업가 정신, 창업실무역량	전담코칭 31명 전문가, 1:1 전담코칭
연계지원 정책홍보, 투자, 마케팅, 입지 등	

원(ONE)스톱 시스템!

은행-건축-계약상당을 한번에

영천 햇빛촌마을

전원주택

부지 분양

영천인근
최대규모
대단지

전용산책로까지 **3**분! 영천시청까지 **6**분! 이마트까지 **9**분!

분양 위치 | 경북 영천시 오미동 신 120-15번지 일대
분양사무실 | 문내동 3-23 (영천중학교 앞)

문의 문의 | 054) 331-0085

전체 조감도

2017년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선정

체육·문화부문 윤인지씨



2017년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수상자는 체육·문화부문에 윤인지

(망정동, 50)씨.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심의회는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영천의 거울'로 누가 보더라도 손색이 없고 영천의 숨은 봉사자를 뽑아야 한다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인지씨는 현재 영천시 축구협회 협회장으로 유소년축구단, 여성축구단 창단, 민·관·군 축구대회 개최, 전국 단위 체육

대회 유치, 제55회 경북도민체전에서 축구부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나눔세상 봉사활동, 인구 늘리기 운동 등 지역의 체육·교육·문화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9일부터 개최하는 '2017 영천 별의별 축제' 개막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이용기 기자

국민교육향상 발전공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박경수 전 청통중학교 운영위원장



박경수 청통중학교 전 학교운영위원장이 국민교육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교육유공자 및 숨은 교육기부자 발굴·포상식에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표창은 국민교육향상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박 전 위원장을 포함, 총7명에게 국무총리 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전달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박경수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있는데 이란 상을 받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가진 재능을 사회에 더 많이 헌신하라는 체직 질로 받아들여 사회 곳곳에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박경수 전 위원장은 영천시학교지원장협의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영천시 여성문화예술인연합회장, 동서청춘대학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용기 기자

영천지역 4개초 졸업생들 추억여행

영천 64회, 중앙 29회, 영화 11회, 영북 28회



1976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영천지역 4개교 동기들이 지난 3일 지난 마이산과 전주 한옥마을 일원으로 추억여행을 다녀왔다.

중앙 29회(회장 김연철)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영천 64회(회장 박달진), 영화 11회(회장 이상

휘), 영북 28회(회장 이도규) 4개교 12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해 옛 추억을 기억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출발장소인 고수부지에는 이만희 국회의원, 김수용·한해련 도의원, 전종천 시의원

및 서만근 전 영천시 부시장, 정우동 전 영천경찰서장, 운영한 전 영천시청년연합회장, 박영환 전 시의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추억여행을 떠나는 4개교 동기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며 배웅했다.

중앙 29회 김연철 회장은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41년이 지났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함께 추억여행을 떠날 수 있는 동기들이 있어 좋다"며 "오늘 하루는 근심걱정 다 잊어버리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영천초 64회 졸업생이며 같은 동기로서 오늘 같이 즐거운 날 함께 어울리지 못해 너무 아쉽다"며 "10년, 20년 변치 않는 동기들의 우정을 바라며 안전한 추억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정욱 기자

물놀이 안전사고 ZERO 달성!

119시민수상구조대

영천소방서(서장 이상무)는 6일 소방서 회의실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대장 박성열)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해단식을 가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임고강변공원, 양향교, 단포교 등 3개소에서 피서객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이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지역 물놀이 안전지킴이로 물놀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단 한건도 없는 '물놀이 안전사고 ZERO' 달성' 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구조대는 해당 기간 동안 총 58명의 인력을 배치해 피서객 인명구조, 현장안전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현장응급처치 41명, 안전지도 49명 등 피서객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상무 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준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의 활약으로 한 건의 인명사고 없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정욱 기자

전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위한 직장교육 실시

영천소방서(서장 이상무)는 5일 오전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9월 정례조회 및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정례조회는 화재진압 등 업무에 지친 소방공무원의 힐링을 위한 남부119안전센터 조수경 소방위의 트럼펫 연주를 시작으로 이상무 서장의 훈시 및 표창장 수여, 직장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표창장 수여는 201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유공자 및 지난 8월 영천시 고경면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에서 적극적인 현장활동으로



화재진압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7명에게 수여됐다.

직장교육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통한 출동공백 방지를 위해 소방장비 점검방법 및 작동방법 교육

과 소방차량 교통사고방지를 위해 소방차량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관한 교육이 실시됐다.

황정욱 기자

제24회 영동고총동창회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선배에게 존경을! 후배에게 존중을! 동기에 우정을!



영동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황창달 9회)가 지난 3일 모교 운동장에서 제24회 영동고등학교 총동창회 한마음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김영석 영천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김수용 도의원, 박영철 영동고 교장, 박영환 직전회장, 황창달 회장, 동문 등 주최측 추산 400여명이 참석했다.

황창달 회장은 대회사에서 "즐거운 시간이 되고, 선·후배 간 우호와 단결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이날 영동고등학교 총동창회와 농·축협 영동동문회는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각 300만원과 이백만원을 박영철 교장 선생님께 전달했다. 손흔익 기자

환경 종사자 특별교육, '그린환경센터'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지난달 30일 그린환경센터 회의실에서 환경관련 종사자(환경미화원, 운전 직원, 재활용 선별동 직원,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환경관련 종사자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환경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북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박기택 교수

의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통증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및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작업 과정에서 신체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청소업무 종사자들에게 통증 해소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나아가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현장 최일선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련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복무기간 확립과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통해 영천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황정욱 기자



“맛집에서 벌어진 육회비빔밥 일곱 친구들의 생론기”

육회 · 고사리 · 도라지 · 시금치 · 배 · 당근 · 무순

‘육회’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고려시대 몽고인을 통해 전해졌다는 설과 조선 시대에는 공자가 육회를 먹어 아무런 저항 없이 정착했다는 설이 있다. 영천지역이 육회로 유명해진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미식가들은 육회하면 영천을 떠올린다. 몇몇 음식점에서 육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저 음식으로만 기억될 뿐이다. 하지만 영천시 도남동의 한우전문점(경성관)에서 판매되는 여섯가지의 나물을 곁들인 육회비빔밥이 미식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다. 육회비빔밥에 들어가는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배’, ‘당근’, ‘무순’이 어느날 한자리에 모여 이 음식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모두 자신 덕분이라고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먼저 ‘고사리’가 입을 뗐다. “우리 조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3여년전 고생대에 살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즐겨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꽃을 피우지 않고 포자를 통해 번식하고 있지! 옛날 아낙네들은 산지의 물 빠짐이 좋은 경사진 땅에서 자라는 우리를 뜯어 오곤 했다. 육회와 함께 오래 씹으면 구수한 맛이 일품이지.”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허연 허벅지가 일품인 ‘도라지’가 속살을 보이며 넉죽 받아쳤다. “무순 소리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잠시라도 쉬지 않는 폐를 이롭게 하는 식물로 호흡이 불편한 증상을 치료하며 폐를 맑게 하고 답답한 가

습을 풀어주기 때문에 육회를 맛나게 하고 있지. 나 때문에 한번 맛본 사람들이 다시 찾는거야”고 소리쳤다.

옆에서 잠자코 있던 ‘시금치’가 끼어들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15~20℃에 자라나기 때문에 영양이 가득한 식물로 알려져 있지. 평일은 물론이고 명절이면 여인들이 반드시 나를 찾아 제상에 올리곤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또 변비와 과혈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 내 공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고 쏘아붙였다.

보름달 모양을 한 ‘배’가 둥근 허를 굴리며 말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를 이겨내지 못할걸. 나는 예로부터 그리스의 역사가 호머가 말했듯이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할 만큼 귀하게 대접받아 왔단다. 냄새 나는 땅에서 자란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르지.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즙 때문에 육회의 비릿한 냄새도 없애주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지”라며 우수했다.

이에 새색시 모양으로 잠자코 들고 있던 빨간 망토를 두른 ‘당근’이 입을 열었다. “허연 속살과 까만 색깔만 가진 너희들만 있다면 음식이 맛이 나겠니? 요즘 오색식단이 인기를 모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던 말이나? 과제주스로도 쓰이는 내가 아니면 사람들이 육회비빔밥을 더 이상 찾지 않을 거야”라며 붉은라퐁프 락 화를 냈다.

육회비빔밥에 가장 늦게 등장하는

‘무순’은 초등학교생의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여러분들과 같지 않아요! 요즘 아줌마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새싹채소이지요! 씨앗을 뿌려 5~7일 동안 자라서 쌍떡잎이 열린 상태가 되었을 때 여기로 와서 맛의 화룡정점이 되기 때문에 저의 공도 빠질 순 없죠”라며 내숭을 떨었다.

자주빛을 띤 ‘육회’가 입술에 힘을 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자랑이 무엇이냐? 내가 아니면 이 음식이 시작되지 않았거늘.”이라며 가소롭게 눈을 흘겼다.

그러자 이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주인이 “너희들의 공으로 음식이 되기는 하나. 그 공이란 사람의 손에 달렸거늘 어찌 너희의 공이라고 우기는 거야?”며 야단치면서 나가버렸다.

‘고사리’가 탄식했다. “정말 매정한 주인이야. 화석으로도 전해져 있고 한방에서 켈근이라 해서 두통, 가래, 해독, 종기, 관절통 등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하고 나의 존재를 무시하다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

‘도라지’가 말을 이었다. “고사리야 네 말이 옳아. 그릇에 담을 때면 정력에 좋다고 한 뿌리씩 먹으며 웃음 짓더니만 화만 낼게 뭐람!” ‘시금치’도 한숨을 쉬고 말했다. “뽕뽕이가 힘이 빠지면 먹는 것이 나라고 손님들에게 자랑하더니 완전 무시하네!”

‘배’가 한마디를 보냈다. “변비에 좋고 해열작용에도 좋다고 다른 음식집에도 사용하는 나를 칭찬은커녕



야단치다니”라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당근’이 가만있을 리 없었다. “식용인삼이라 불리 울만큼 영양이 아주 풍부하고 음식의 맛은 색깔이라고 늘 말하더니만 나야말로 제일 기분이 나빠”라고 울적해 했다. 아직도 눈치를 채지 못한 ‘무순’은 “우유와 비교해 비타민이 엄청 풍부하고 감자보다 칼슘이 10배가량 많은 내가 최고예요. 임신 중인 산모들이 나를 계속 찾고 있다는 소릴 들을 때면 기분이 좋아요”면서 우쭐했다.

‘육회’가 나섰다. “단백질이 없으면 신체를 이룰 수 없지. 탄수화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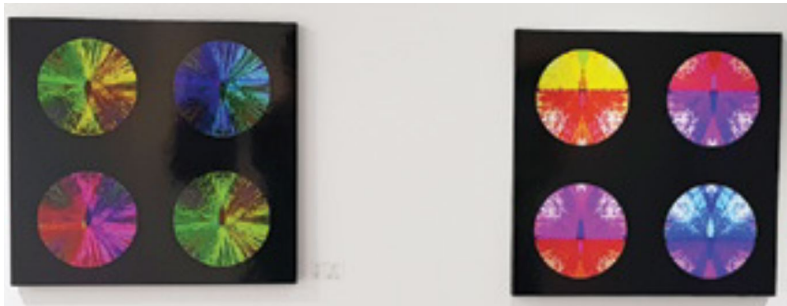
방에 이어 단백질이 풍부한 나를 통해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라며 잠잠을 뱉었다.

바깥에 나갔던 주인이 돌아와 일곱 가지 재료에게 한마디를 했다. “너희들의 희생을 어찌 모르겠니? 너희들로 인해 사람들이 밝은 표정을 지을 때면 나는 너무 기쁘단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단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자랑을 많이 할게!”라며 일곱 벗들에게 말을 전했다. 주인의 칭찬을 받은 일곱 재료들은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물러갔다.

이용기 기자

갤러리 큐브, ‘JACKIE 백 개인전’

사진과 회화의 조합, 새로운 장르 탄생 예고 하늘실뜨기변주곡 작업 SNS서 폭발적 인기



이거 끝내준다. 무엇일까. 어두움속 반짝반짝 초록빛. 가만히 손을 뻗는다. 잡으려 다가서면 물결위에 비친 빛처럼 출렁인다. 흩어진 빛 때문일까? 숨조차 탁 멈추게 되는 첫 경험. ‘사진과 회화의 조합’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회화가 전혀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두 만남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작품을 처음 접한 기자의 느낌이 그렇다.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만났다고 하면 너무 설부르다고 할까. 그저 휴대폰 속 사진으로만 남았을 뿐 했던 것이 심상이미지로 표

현되면서 가슴이 쿵쿵쿵. 이런 느낌을 받은 작품이 지역 최초로 시민참여 예술 프로젝트를 시도한 ‘갤러리 큐브’에서 전시된다. 일명 ‘JACKIE 백’ 개인전. 작가가 ‘JACKIE 백’이다.

사진이 그냥 사진이 아니다. 사진이 평면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비틀어져 입체로 만들어졌다. 빛이면 빛, 건물이면 건물, 꽃이면 꽃이 팝콘처럼 이리저리 튀며 영겨진 느낌이지만 거북스럽지 않다.

‘JACKIE 백’의 변이다. “내 사진

작업의 모토는 ‘깊은 고독은 내 예술의 원천이다’ 내 사진들은 회화주의 사진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소개한다. 첫 번째, CCS(Car’s Cradle in the Ski-하늘실뜨기)작업이다. 처음엔 꽃, 하늘, 노을 등 예쁜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그래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전봇대나 전선을 참 추잡하다 내지 치렁치렁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비오는 어느 날 우연히 하늘을 올려다보니 회색하늘을 실뜨기처럼 엮고 있는 전선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2014년 2월 9일이였다. 전선 또는 전선이 있는 건물을 작업하는 CCS가 처음 시작된 날이였다.

두 번째, CCS Variation(하늘실뜨기 변주곡)들인데 이게 주로 심상이 이미지 또는 패턴이 되는 일련의 작업인 셈이다. 패턴들의 주요 포인트는 아름다운 자연물과 빛이다. 가능한 빛이 든 구조물이나 자연물을 찍어 변형한다. 들여다볼수록 깊은 곳에 숨어있는 빛들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JACKIE 백’의 실험적인 작품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했다. 아르헨티나 여성이 트위터

패턴을 계속 카피하고 변형해서 사용해 수차례 경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도용하는 바람에 차단시켰다.

앞서 지난달 서울 인사동 리수갤러리에서 ‘CCS 변주곡 새로운 아침을 열다’란 주제로 2017 JACKIE 백 개인전을 가지기도 했다.

조은정 갤러리 큐브 대표는 “이작가는 영천의 모든 사물을 그냥 보지 않았다. 다른 각도로 보면서 새롭게 풀이해 재미난 창조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갤러리가 그림만 다를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새로운 작가를 발굴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고 싶다”며 소망을 밝혔다.

사진에 정통한 한 전문인은 “JACKIE 백의 작품은 평면 작업보다는 영상으로 진출하면 정말 훌륭한 작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

했다. 한편 갤러리 큐브에는 평면 작품 뿐만 아니라 2층에 미디어아트 작품이 시연되고 있다. 또 작품을 배경으로 만든 ‘고흐의 스카프’를 제작해 원하는 이들에게 유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용기 기자



중소기업진흥청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과정을 지원해 혁신적인 '청년창업 CEO'를 양성하기 위해 2011년 개교했다. 선발된 청년에 대해서는 창업절차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을 ONE-STOP 지원한다.

신청분야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고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으로 총사업비 중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선발된 청년창업자를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 편집자 주



517산양삼발효쿠키 김민지 대표

제과제빵 기술을 보유한 신세대다. 웰빙시대에 건강식품이란 아이템을 선정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웰빙간식으로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발효산삼 쿠키를 개발했다. 특수 발효기술을 개발해 산양삼이 보다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산양삼 쿠키 특허출원중이다.



학습 공개 수업을 실시해 학부모들부터 극찬을 받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미 이 분야에 인정을 받은 인재다. 대한제과협회에서 주최한 제13회 서울국제빵과자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아카데미 제과 개인전 대한민국 명장(2009년) 등 각종 제빵대회에서 10여 차례 상을

청년사관학교가 주목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문화결핍으로 인한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해 더 나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연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재료도 충북에서 생산되는 무농약 산양삼을 선정해 안심할 수 있다.

실제 어린이집 등에서 홈페이지 제작 받은 소유자다. 김민지 대표는 "산양삼은 아시아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품으로 단순한 식품 판매를 넘어 바른 먹거리문화 제공과 건강식품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가 가능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용기 기자

eo eoblock 대표 박수진

목표는 해외시장이다. 섬유가 대구의 전통산업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가족들이 섬유업을 시작해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개인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격이나 품질 등의 경쟁이 치열해 어려움을 겪었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셈. 납품을 위해 중국 백화점을 방문한 것이 어린이용품 시장에 대한 눈을 뜨게 했다.



완구는 어린이뿐 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마니아로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20쪽의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도 피곤함이 없었다. 문제는 개발자금이었다. 지인으로부터 창업을 위한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문을 두드렸다. 남편 덕분이었다.

소풍물 납품을 담당하던 중국인 파트너의 협조도 사업 가능성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했다. 예정에 없던 해외출장에서 운명처럼 원단을 접목할 수 있는 완구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아이디어를 위해 해외사이트를 뒤졌고 남편은 밤늦도록

다양한 정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있는 지금도 다른 지원사업 중 가장 돋보이는 제도이다"면서 "제품 개발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귀띔했다.

이용기 기자

LEESONIX 이소닉서 이소향 대표

트렌드를 맞춘 아이템이다. 우리나라 도시 전체가 커피전문점으로 채워진 느낌이다. 아이디어는 해외 봉사활동에서 발견했다. 그 지역에서 재배된 쌀이 제대로 분류되지 않아 값이 저렴한데 비해 일본에서 들어온 쌀은 깨끗하게 선별돼 비슷한 맛과 품질에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을 AI 기능을 조합한 소형화된 제품만 개발할 수 있다면 '대박이다'는 생각으로 피곤함도 잊은채 동분서주하고 있다.

곡물선별기가 문제였다. 기존 기계는 기술적인 한계로 크기가 크고 대량생산에만 사용돼 소규모 농장에서 비용이 부담스러워 노동력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특히 커피는 선별이 필요한 곡물 중 생산과 수요가 활발한 최고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여러 선별과정을 거치는 커피의 특성상 대형농장 외에는 수작업으로 이

대량생산에 초점을 둔 기존 기계보다 소형화, 저렴한 가격, 인공지능이 탑재된 '소형 색채선별기' 제작에 도전하고 있다.

이소향 대표는 "커피는 선진국에서 필수품으로 분류돼 제품이 개발되면 시장확장성은 무한하다"면서 "기회를 준 사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연구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용기 기자

이지마크(EZ MARK) 김서진 대표

경력단절의 여성의 도전기다. 3살, 5살 아이를 둔 주부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성한 열정 가득한 도전자이다. 창업 아이템과 시작도 독특하다. 김 대표가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제품은 '소형화 금속 마킹기'이다. 자동차 금형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며 금속에 제품번호나 모델명을 기입할 때 사용되는 마킹기이다. 자동차 차체부품을 생산하는 남편으로부터 금속에 마킹을 할 때 현재 판매중인 제품의 문제점을 듣고 출발했다.



했다. 중소기업체들은 고정 비용이 높아지면 구매를 꺼리기 때문에 대중성이 떨어져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작으면서 휴대가 간편한 마킹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치면서 시제품 개발에 들어갔다.

기존 제품들은 휴대가 불가해 이동 제한성이 있다는 것. 또 무게가 무거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높은 가격으로 구매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발견

입교후 전담 교수의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코칭과 사관학교의 특화된 프로그램, 동기생과 졸업생의 도움으로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지금은 시제품 개발중이지만 남은 기간 개발에 집중해 졸업할 때쯤이면 제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용기 기자

LaLa 컴퍼니 정장원 대표

LaLa 컴퍼니는 라틴어로 '빛나는'이란 어원을 담고 있다. 테라피 조명을 만드는 1인 창조기업이다. 2015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최한 스타트업 스쿨 참여를 계기로 창업의 꿈이 키워왔다. 2016년 중소기업진흥원의 스마트창업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LED무드등'이 MVP로 선정되면서 시발점이 됐다.

이후 2017년 중소기업진흥원의 청년사

관학교의 창업프로그램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최근 대구경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최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배출한 명문 산업디자인 대학인 영국의 '골드스미스'와 한달여간 진행된 글로벌 디자인워크숍 및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를 계기로 제작된 프로토타입의 결과물이 비디오프레젠테이션에서 선정돼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골드스미스 디자인 페스티벌에 제품을 전시하는 행운도 거머쥐었다.

정장원 대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기업은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면서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좋은 디자인은 유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구성된 과정을 통해 생산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과정을 우습게 보지 않겠다는 1인 기업인의 당찬 다짐에 기대를 걸어본다.



이용기 기자

영천시, 유기성기성 폐기물활용 장려상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경북도가 주최하는 '2017년지방재정 개혁 우수사례발표'에서 영천시가 유기성폐기물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및 전력 생산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6일 경북 문화콘서트전주홀에서 시군 예산관계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대회는 예산절감 사례에 대한 재정개혁 분위기 확산과 재정효율화 방법 및 기술을 전파·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총 22건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건에 대해 우수사례를 발표 후 6건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회결과 최우수에는 울진군(500만원)이 선정됐고 장려에는 경북청정 청정에너지산업과, 영천시, 예천군(각 100만원)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에 선정된 울진군은 '땅속으로 줄줄새는 물(돈)을 막아라!' 라는 주제로 상수도노후관의 체계적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땅속으로 새는 수도물 누수율을 획기적 개선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선정됐다.

입상한 최우수 울진군과 우수사례 안동과 문경시는 금년도 연말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20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경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선정된 우수사례의 재정개혁을 위한 방법과 기술을 적극 홍보해 지방재정이 더욱 건실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고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용에 힘써 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장지수 기자

2017 블루섬 와인파티 & 파머스마켓 개최 대도시 소비자에게 농·특산물 알리기회 마련



영천시 대창면에 위치한 블루섬 와이너리(대표 심정미)에서 블루섬 누보 파티 & 파머스마켓이 지난 2일 개최됐다.

누보 파티(NUUVEAU PARTY)는 올해 생산된 포도를 이용해 핫와인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파티로 영천 와인 홍보를 위해 가족단위의 소비자를 초청해 진행된 행사다.

이번 행사는 와인 시음 및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와인·에코백·팝아트 만들기, 텃밭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다. 미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지역음악가들의 공연이 펼쳐지는 등 참석한 300여명의 소비자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선물했다.

특히 9월~11월 까지 이곳에서 매주 토요일 농민들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파머스 마

켓 @영천과 영천와이너리들이 함께 참여해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추진되었으며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영천의 농산물과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정재식 영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재 와인의 대중화로 영천 와인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영천 와인의 맛과 문화가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북도, 영천시, 한국농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고 블루섬와이너리, 언니농부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다섯그루가 공동기획해 주최했다.

이용기 기자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빵 유통기한 연장 소규모 빵 제조업체 HACCP 인증 획득 지원

경북지역 소규모 제빵업체의 빵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2020년부터 강제 시행되는 '소규모 빵 제조업체의 HACCP 인증' 획득 문제 해결에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일 경주시 소재 찰보리빵 제조업체(주)신라명가(대표 한은지)와 '찰보리빵 유통기간 연장 기술 개발·이전 및 소규모 제빵업체 HACCP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역 산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 3월 경주 찰보리빵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민생·실용·현장 속으로'를 수행한 결과 업체의 시급한 문제로 도출된 찰보리빵의 짧은 유통기한과 2020년부터 강제 시행되는 '소규모 빵 제조업체의 HACCP 인증' 획득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찰보리 등 순수 곡물빵은 인공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을경우 상온에서 유통시 제조 후 2~3일 후부터 일부 제품에 곰팡

이 생육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기고 짧은 유통기간으로 판매량 확대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일부 개발된 곰팡이 사멸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면 적어도 5일 이상 제품의 상온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며, 향후 기술 개발이 더 진행되면 최소10일 이상까지 곰팡이 생육이 억제되어 제품의 위생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유통망의 다양화로 찰보리 재배농가 및 제빵업체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 보리빵 업체인 '영천순보리빵'과 '영천별빵'의 제조사인 농업법인회사(주)영천명과)등도 지역 특산품으로 추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HACCP(해썬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요소가 식품에 혼입·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이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교통행정과, 교통표지판 민원 신속 처리 이중 제한속도 구간 제한속도 단일화 시속 40km로 고정



영천시는 본보 8월 24일자 보도(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점 따라 제한속도 제각각, 합정단속 의심 기사)와 관련해 영천경찰서와 협의 후 지난달 25일 해당지역 과속단속무인카메라 제한속도 안내 도로교통표지판을 즉시 교체 했다.

영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지역(화북삼거리)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다. 영천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500M 전방 안내 표지판의 제한속도 표시를 시속

40km로 바꾸고, 150M 전방 안내표지판에는 무인단속중 표시(제한속도 표시 제외)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곳 도로에는 과속 단속카메라 전방 500M 이내에 각각 속도 40km/h와 60km/h 등 이중으로 표기돼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돼 왔으며 일부 운전자들은 합정단속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본지에 제보했었다.

손훈익 기자

2017 경북동호인 화합 축구대회
 2017. 9. 3.(일) ▶ 9. 10.(일)
 육군3사관학교 · 영천단포축구공원
 ※입장식 9시30분

주최 **영남일보** 영천시체육회
 주관 **영남일보** 영천시축구협회
 후원 **경상북도** 영천시 NH농협 DGB대구은행

고경초, 경북학교스포츠클럽탁구대회 여초부 3위

“소규모학교 경북도 3위는 쾌거”

고경초등학교(교장 이경순)가 2017년 경상북도학교스포츠클럽 탁구대회서 여초부 3위의 성적을 올렸다.

고경초는 지난 2일 영천 성남여고에서 열린 올해 경북학교스포츠클럽

탁구대회에 영천시 대표로 출전해 이같은 성적을 거뒀다.

2015년에 창단된 고경초등학교 탁구스포츠클럽팀은 이번 대회에서 경상북도 시·군대표팀 중 영덕 축산초와 상주 성동초를 이겼지만 아

쉽게도 문경 모전초등학교와 팽평한 경기를 펼치다 아쉽게 패해 여초부 3위를 기록했다.

고경초 관계자는 “소규모학교에서 경북도 3위는 쾌거라”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영천Wee센터 학생자원봉사동아리 해피투게더 치산계곡 환경정화활동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병수) Wee센터 학생자원봉사동아리 해피투게더 22명이 지난달 26일 영천시 신령면 치산계곡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성수기 동안 많은 휴가객들이 치산계곡을 찾아 휴가를 즐긴 후 남기고 많은 양의 쓰레기들을 수거했다. 또 이번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틀림없고 건강한 자연을 만들기 위해 땀방울을 흘렸다.

최준백 학생은 이날 정화활동에 참가해 “자연이 깨끗해져서 보람됐다.”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치우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로 다짐했다.

학생자원봉사동아리 해피투게더는 영천 관내 고등학생 5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손흔익 기자

성덕대학교, 한국마사회 협력승마시설 지정



성덕대학교(윤지현 총장)는 지난 30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재활·힐링 승마시설(그리승마존)으로 선정돼 협약식을 가졌다.

한국마사회 협력승마시설 선정은 한국마사회에서 말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승마시설 및 운영 분야의 표준 모델 제시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성덕대학교는 기존 재활승마에 대한 노하우와 다년간의 재활·힐링 프로그램 운영, 재활승마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및 시설, 인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번 한국마사회 협력승마시설에 선정

됐다. 성덕대학교는 이번 한국마사회 협력승마시설 지정을 통해 지역 및 승마산업의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해 승마의 대중화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덕대학교 관계자는 “기존의 재활승마 프로그램과 더불어 지역민을 위한 재활·힐링 승마 프로그램, 가족 승마 프로그램, 재활승마장 견학 등으로 지역사회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영천고, ‘사이언스 투어’ 과학 여행!

2017학년도 과학중점학교 투어



영천고등학교(교장 권기탁)는 지난달 30일 1학년 학생과 2학년 3반, 과학중점반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울산 장생포고래문화마을로 ‘사이언스 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투어는 체험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과학 활동 수업으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 충족과 왕성한 에너지를 발산을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영역의 과학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호기심과 탐구력 향상을 가지는 학습을 수행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과 동시에 과학 소양과 인문학적 소양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기회다.

1학년 ‘사이언스 투어’는 국립대구과학관과 대구미술관을 방문, 예술 표현에 이용되는 과학 원리를 찾아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체험했다.

2학년 ‘사이언스 투어’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반구대 암각화 박물관을 방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자동차의 역사와 자동차의 생산과정을 견학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고래 박물관과 생태체험관 체험으로 해양 포유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손흔익 기자

영천중앙초 1학년 손지민 학생 장학기금100만원, 불우이웃돕기성금 100만원



영천중앙초등학교 1학년 손지민 학생은 지난달 30일 영천시장학회(이사장 김영석)에 장학금 100만원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의할머니인 박순이 남부동 통장 협의회장과 함께 자리한 기탁식에서 손지민 학생은 천진하고 해맑은 미소와 함께 “엄마랑 함께 생각해서 기부하게 되었고, 제 꿈은 아이돌 스타가 되는 거예요.”라며 수줍게 소감을 밝혔다.

박순이 통장은 부군이 운영하는 영천지하수개발(대표 이용구)에서 2011년부터 매년 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기탁해 기부가족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손지민 양이 그동안 모은 용돈을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쾌척한 것은 가족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김영석 이사장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장학금을 받아야 할 어린나이에 타인을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생각한다는 것이 힘든 일인데, 잘 자라서 훌륭한 영천인이 되어 미래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재)영천시장학회는 장학기금 200억 조기달성의 감사함을 전하고 300억원조성의 목표를 홍보하기 위해 기업체, 출향인, 영천시민에게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영천시청 전직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장학기금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용기 기자

영천여고, 학생언어문화개선 플래시 몹 제작 언제나 바른 말 고운 말 사용



영천여자고등학교(교장 이동걸)는 ‘2017년 학생언어문화개선 플래시 몹 대회’에 참가했다.

교육부 등이 주관한 대회에서 바른 말을 사용과 한글사랑 온 몸으로 실천했다. 영천여고는 학생문화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대회에 응모해 지난 4월 경북도 초·중·고등학

교 중 유일하게 선정돼 전국 30개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언어문화개선의 첨병 역할을 시작했다.

이번 플래시 몹 활동은 청소년 언어습관을 진단하고 성찰하며 바른 말 사용과 한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언어문화개선을 널리 홍보해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의 동

참을 이끌어냈다. 학생들은 경북지역의 대표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개사, 녹음, 안무, 촬영 및 편집 등의 전 과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영천여고의 아름다운 교정은 물론 보현산천문대, 임고서원, 영천역 등에서 적극적인 플래시 몹 활동을 전개해 많은 시민들에게 언어문화개선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영천여고 1학년 김예빈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언어문화개선 활동에 참여해 매우 즐겁고 행복하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라는 격언처럼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해 내면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동걸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플래시 몹 활동을 통해 부적절한 언어습관을 개선하고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이 올바르게 점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영천여고는 학생들의 바르고 고운 말 사용 실천을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지역 초·중·고 중간간부 행정역량강화 연수

영천교육지원청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병수)은 지난달 30일 영천교육지원청 3층 컴퓨터실에서 영천 관내 초·중·고·교육지원청 중간간부(교육행정 6급) 20명을 대상으로 행정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교육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질을 향상하고, 솔선수범하는 업무 자세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아울

러 학교회계 에듀파인 세입·세출 시스템과 학교장터(S2B) 및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직접 실습하면서 교육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유병수 교육장은 “앞으로의 교육행정은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는 시기이며 급변 연수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향후 영천 교육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흔익 기자

말은 달리고 사람은 즐기는 축제 Welcome to 영천 제5회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馬術)축제



이번 축제는 14일 한국마사회와 협업하는 경주지역 승용마 안전성 및 능력 평가대회(BRT)를 시작으로 본 행사인 15일부터 장애물, 마장마술, 권승경기, 크로스컨트리 등 320개 종목과 총200여 마필이 출전하는 초대형급 마술축제로 성황을 이룰 예정이다.

‘달리자 영천, 즐기자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비롯한 장제시연, 행운의 편지만들기, 트라아트 포토존, 미니마차 체험, 어린이 체형승마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어 축제의 즐거움을 한층 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회식 사전행사로 영천 성남여고 윈드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포니음악 산책을 준비했고, 식후행사로 조선통신사의 최고 하이라이트 ‘영천 마상재’ 공연과 ‘승용마 가을 경매 페스티벌’이벤트가 마련되어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특히 문화예술 행사로 16일 오전에는 영천대마 청소년 춤마신 대회가 열려 영천지역의 유명 댄스 팀뿐만 아니라 포항, 경주, 문경, 대구 등 인근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춤꾼들이 모여 진정한 춤신을 가리는 화려한 댄스경연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석 시장은 “선수들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시민들은 마음껏 즐기는 승마축제를 만들기 위해 승마경기와 함께 다양한 공연 및 부대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馬術)축제를 통해 영천이 지향하는 문화가 흐르는 말의 도시 영천이 다시 한 번 전국에 더욱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제5회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馬術)축제’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영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특별행사장에서 열린다. 영천대마문화의 힘찬 비상을 부각시키고 말산업 특구도시의 상징적 문화행사로 개최된다.

영천시가 주최하고 영천시승마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고 기량을 가진 승마선수들의 마술대회와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병행한 종합마술 축제로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한국마사회, 대한승마협회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역대 최고 권위의 전국 승마대회가 될 전망이다.

영천시, 경북도 일자리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노·사·민·정 화합 시책 등 탁월



특히 신규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수의 대책회의 개최, 부서별 일자리시책 발굴 및 추진, 일자리점검을 위한 일자리상황관 설치, 노사민정협력활성화, 다양한 농업 시책사업 추진, 항공산업육성, 한방·와인·말산업의 전문기양 양성 등 지역 특성형 일자리구축을 위한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7년 상반기 경북도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영천시가 3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PPT발표를 통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기관을 확정했다.

영천시는 지속적인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기업의 투자유치 및 관광활성화 등 공공·민간부문 4,296개의 일자리목표중 상반기 3,340개의 실적으로 78%의 일자리성과를 거두

또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체 주 4일근무제 등 일자리나눔사업 추진, 일자리 Bank운영 및 사회적경제 Ten-Ten 프로젝트 추진, 기업체 고용목표제 시행계획 등 일자리늘리기를 위한 단계적 추진 의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앞으로 일자리유관기관 및 연구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

이 난은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영천신문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개업인사, 영업홍보, 구인광고, 결혼, 축하, 행사 등을 알려주시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전화 —
광고국 054)338-7100
010-7138-3340
FAX)054)335-6600
E-mail : licjy4@hanmail.net

북안종합건재(주)
건축자재전문기업
예림도어/몰딩/마루/사시/합판
목재/방부목/싱글/사이딩
영천시 북안면 운북로 1973
☎ 054) 333 - 7025

타일시공
타일시공 · 욕실수리전문
박봉환 010-4870-9686
계좌번호 : 농협 758-12-122338

친절하게 안전하고 빠르게 모십니다!
박종석 011-521-0006
친절하게 안전하고 빠르게 모십니다!

미스터 플라워
전국 꽃 배달서비스
신정희 010-3554-3726
영천시 금원로 81-1(완산동)
☎ 054) 333 - 8877

(주)부국전력·소방
면허 제1025호
(소방공사업/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이정기 010-2804-7951
영천시 야사동 119-12번지
☎ 054) 332 - 7282

세원인력개발
인력모집/수목관리/집수리
청소철거/폐기물/토목
박석암 010-4511-9525
☎ 054) 332 - 9525

삼송꾼만두
사단법인)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박동환 010-8852-8806
☎ 054) 333 - 8806

일신종합상사
납품전문업체
금형공구/금형표준부품
금형소모품 및 밀핀가공
영천시 영천신대로 347-17(채신동)
☎ 054) 337 - 0984

무전기로 전 세계 사람들과 교신하고 싶으세요?

경북본부 제129기(3급), 제29기(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강습회

◆ 일 시 : 2017년 9월 10일(일) 09시~18시
◆ 장 소 : 영천시 자원봉사센터 1층 (영천시 영천고2길 57)
◆ 안내처 : 경북본부 054)553-5973
영천지부장 DS5SSY 최호병 010-3545-4135
사무국장 DS5TAA 최일호 010-3502-1273

○수강료 : 3급(4급 교육이수자 한함) 40,000원
4급(일반, 학생) 130,000원
4급(3급 교육이수자) 70,000원
(4급 자격증발급수수료, 우편료, 대항료 포함)
○준비물 : 반명함판사진 1매, 신분증
학생은 주민등본 지참
○교육시간
- 전파법규(3), 통신보안(1), 무선설비취급방법(4)
총 8시간 : 3급(4급 교육이수자), 4급(일반)
- 전파법규(3), 교양교육(1) 총 4시간 : 4급(3급 교육이수자)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북본부 영천지부

영천와인, 2017 아시아와인트로피 대회 실버상 수상

고도리 화이트와인과 뱅꼬레 화이트와인

지난 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아시아와인트로피 시상식에서 영천와인이 실버상 2점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32개 나라 3,984종 와인이 출품됐다. 130명의 국내의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 결과 영천에서 생산된 고도리 화이트와인(고도리 와이너리, 대표 최봉학), 뱅꼬레 화이트와인(한국와인, 대표 하형태)이 각각 실버상을 수상했다.

영천와인은 2009년부터 꾸준한 주질향상 교육 및 컨설팅으로 각종 와인 품평회에서 우수 와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13, 2014년 동 대회에서도 실버상, 골드상을 수상한바 있다.

이번에 수상한 고도리 화이트 와인은 청수품종(농촌진흥청에서 육종한 포도품종)의 원료만 가지고 만든 와인이다. 또 한국와인 뱅꼬레 화이트 와인은 국내품종인 청수와 국제 양조용품종을 블렌딩한 와인이다.

이번에 수상한 와인은 9월 30일에서 10월 1일(2일간) 영천강변공원에서 개최되는 제5회 영천와인페스타에서 와인잔을 구매하면 무료로 시음할 수 있다.

손흥익 기자



은해사 신도회-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호교류 협약

다문화가족 25가구 80여명, 은해사 템플스테이 실시

은해사 신도회(회장 이연화)와 영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상임)는 지난 2일 오후 은해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주지 돈관스님, 이연화 신도회장과 회원 및 영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상임 센터장, 다문화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교류 MOU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연화 회장은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향상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양 단체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다.

조상임 센터장도 "지역사회 속에서 오늘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을 통해 양단체는 다문화



가족지원사업을 위한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 공동 프로그램운영 및 연계사업 추진,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상호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 후 참석한 다문화가족 25가구 80여명은 1박 2일 일정으로 은해사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손흥익 기자

영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 개최



영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석·한승훈)는 지난달 30일 '마야실비노인요양원'에서 영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올해 3분기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소속시설을 순회하며 지역 복지시설 정보공유를 위한 이번 대표협의체 간담회는 한승훈 위원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읍면동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 한승훈위원장 발전기금 배분계획(일

천만원), 읍면동보장협의체 평가 및 시상 등 지역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한승훈 공동위원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을 위해 구성된 보장협의체가 2018년 전면 시행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발맞춰 영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분야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 강조된다."고 인사를 했다.

손흥익 기자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나눔·소통의 재능기부

내·외과진료, 농기계점검, 장수사진



촌진흥청과 순천향대학교의료원은 지난 2일 영천시 임곡면 복지회관에서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을 비롯

해 이만희 의원, 김순화 시의회의장, 박래경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장, 광영호 경북농업기술원장, 조남철

부시장, LG전자 서비스팀, 마을주민 2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을 열었다.

이날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은 농촌진흥청과 순천향대학교 의료진이 참가하는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농촌진흥청,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LG전자, 경북농업기술원, 영천시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은 의료복지 및 행정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불편한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가 흙땀 어린 등 취약층을 지원하는 나눔·소통의 재능기부 봉사활동 및 영농 애로 민원 해소가 목적이다. 이동 병원은 2010년부터 시작해 이번이 20회째다.

손흥익 기자

경 진주강씨 영천시 청·장년회 창립 축

진주강씨 영천시 청·장년회가 종친들의 협조로 창립하게 됐습니다. 이에 혈육의 정을 함께 나눌 청장년 종친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종친의 정을 나누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진주강씨 청·장년회의 무궁한 번창과 발전을 위한 행복동행에 종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 | | | |
|-------|-----|------|-----|
| 고문회 | 강희중 | 이사 | 강미애 |
| 고문회 | 강병창 | 이사 | 강성열 |
| 회장 | 강동연 | 감사 | 강종화 |
| 수석부회장 | 강득원 | 사무국장 | 강귀환 |
| 실무부회장 | 강준묵 | 기획차장 | 강동영 |
| 여성부회장 | 강경분 | 사무차장 | 강대활 |
| 이사 | 강낙중 | 재무차장 | 강형구 |
| 이사 | 강정호 | 조직차장 | 강희봉 |
| 이사 | 강종묵 | 홍보차장 | 강동헌 |

※회원가입 문의처 사무국장 010-3518-9113

부모 자식 간 소통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 교육

스마트 미디어 시대, 유아기 밥상머리에서부터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병수)은 8일 영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17 다음세대를 위한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 교육' 유아 학부모 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는 영천교육지원청 남홍식 교육지원과장, 서해숙 전문강사, 관내 유치원 학부모 60여명과 교육청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의는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 우리 i 지킴이'란 주제로 서해숙(난나유치원.하나터어린이집 원장)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전문 강사의 '부모·자녀 간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에 대한 강의'가 주 핵심이다.

또,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과 이용 습관을 위해 제작된 실천노트를 제공해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아기때 부터 인터넷 등 올바른 미디어사용법을 밥상머리에서 소통으로 넓혀나간다는 교육의미다.

"밥상머리 교육은 아버지를 통해 많이 배우게 된다"며, "아버지들이 연수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서해숙 강사의 당부도 있었다.

남홍식 교육지원과장은 "가정에서 아침과 저녁식사 시간이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때문에 '밥상머리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고 있다."며 "가정건강이 학교건강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손흥연 기자



스마트폰으로 보는 인터넷 영천신문

날씨어때

8일 맑음 17°C ~ 30°C	9일 맑음 15°C ~ 31°C
10일 구름조금 16°C ~ 29°C	11일 비 21°C ~ 25°C

우리지역 우리신문 영천신문 등록일자: 2011년 11월 16일 등록번호: 경북다01416

발행인: 박종운 편집인: 이용기 인쇄인: (주)중앙일보
취재부: 338-7100 광고부: 332-2400 FAX: 335-6600
구독료: 1년 4만원, 3개월 1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아사동 보목2길 3
E-mail: licjy4@hanmail.net
계좌번호: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사설

영천시장, 고경산단 MOU에 집착하는 이유

담당과장, 시행사 대표이사 바뀐 줄도 몰라

지난 1일 영천시가 영천고경산단(주)와 시공사 등 7개 기업들과 고경산단 재개를 위한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10년 가까이 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해 지지부진해 오던 고경산단이 마치 재개의 날개를 달았다는 듯 '이르면 10월 착공, 조성사업 탄력,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급물살' 등의 최상급 제목으로 각 일간지와 방송사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홍보의 극치를 보였다.

심지어 김영석 영천시장까지 나서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천에 복덩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다"라며 "영천고경산단에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홍보에 열기를 뽐냈다.

특히 김 시장은 "GS건설의 시공사 참여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자원 확보에 참여해준 금융사에도 고맙다는 인사로 머리를 숙였다. 또 "이번 MOU를 성사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황만수 고경산단 대표께도 너무 고맙다"며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영천시(김영석 영천시장)가 이렇게 고경산단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는 내년 지방선거가 말없이 짝씩째 다가오고 있기 때문 일케다. 다음으로는 지역 최대 이슈였던 경마공원조성사업 지지부진으로 시장 운영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시켜 체면을 구긴 것도 김 시장을 조급하

게 만든 이유일 수 있다.

과연 이번 MOU가 믿음만할까? MOU체결에 나선 H씨는 영천고경산단(주) 대표이사도 아니다. 대표이사는 이미 지난 5월에 자신의 부인 명의로 바뀌었다.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대표로 나서 싸인 한 MOU다.

더욱이 H씨는 현재 사기혐의로 고소돼 재판 중이다. 그것도 1건이 아닌 형사사건만 2건이다. 민사소송까지 합하면 3건의 송사에 휘말려있다. MOU를 체결하는 당일인 지난 5일은 산단 주식 100%를 65억원으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돼 1차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날이었다.

또 MOU가 진행되는 당일 해당부서장은 핵심 시행사인 영천고경산단(주) 대표이사가 변경된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니 영천시는 경북도에 시행자 대표 변경 승인요청을 생각지도 못한 처지다. 영천시의 보도자료 역시 신뢰성이 없다.

당초 투자금액 5400억원보다 무려 1천600억원이 늘어난 7천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도 했다. 경제 유발효과 역시 천문학적인 3조5천억원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시설용량 78.13%나 체결됐다는 것도 검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모두 시행사인 산단측 자료로 영천시가 앵무새가 돼 그대로 언론에 보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36% 정도의 청약율을 내다보고 있지만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 숫자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 스스로도 MOU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한다. 실제 MOU 증서에도 "본 양해각서는 상호 이해를 선의에 따라 열거한 것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영천시가 산단 시행자를 자처해 물의를 일으킨 이유가 더욱 궁금해진다. 착공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산단이 분양문의 받고 있는가하면 앞서 저지연해에는 고경산단과 관련한 분양 사기주의보 현수막까지 나붙었다.

고경산단은 지금도 홈페이지에 영천시를 시행자로 소개하고 있는 등 의혹투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영천시가 시행사 인양 앞장서 산단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 의도적 청약을 높이기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시민 누구도 산단의 조기조성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례로 보아 영천시의 MOU는 신뢰성과 진정성이 없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더 이상 보여주기 식 행정은 이제 끝내주길 당부한다.

어떻게든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싶은 김 시장의 마음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영천시, 기업 먹튀에 놀아났나?"는 지난언론들의 기사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길 바란다.

특자기고

수능 개편 1년 유예를 보면서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안상섭

및 내신 성취평가제,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의 폐지 등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더 큰 혼란이 예고되어 있으며 결정하여 발표에 이르기까지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라보는 교육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보고 교육 정책 혼란과 불신을 최소화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입제도도 다른 어떤 교육정책보다 일관성과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수능개편 1년 유예 결정으로 현 중학생들의 입시상황이 급변하면서 불안감으로 인해 학생·학부모들은 결국 사교육에 더욱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책이나 제도가 한번 정해지면 쉽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교육법정주의를 반드시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수능만큼이나 관심이 많은 것은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경북은 수도권 대학의 입학사정관과 상담할 기회가 대입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교사에 따라 학생부 기재 역량의 차

이가 크며 학생부는 사교육의 질과 양은 물론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절대평가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학종 전형에 대한 공정성 강화와 감감이 전형 또는 급수저 전형이라는 비판 속에서 무엇보다 신뢰 회복이 중요합니다.

셋째, 새 정부는 국민들 앞에 더욱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교육 부문에서는 지지부진한 성과와 갈등만 초래한 정책 밖에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 조정능력도 정책 당국인 교육부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교육부가 내건 정책에 대한 확고한 주관과 설득력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능 개편 1년 유예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가 될 전망이며, 지금 대입하는 의견과 갈등은 1년 유예됐을 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아이들만 힘들어졌습니다. 교육정책의 해답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있는 교육현장에 있음을 교육부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영천대마" 문화의 힘찬 도약!

제5회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馬術) 축제

- ◆ 일 시 : 2017. 9. 15(금) - 17(일)
- ◆ 개최식 : 2017. 9. 16(토) 13시 30분
- ◆ 장 소 : 운주산승마조련센터(영천시 임고면 승마중앙로 62-29)



2017년 영천대마 승용대경매 Festival
 • 제주마, 한라마, 푸니, 경주퇴역마 등

마술(馬術) 종목
 • 장애물경기 • 마장마술경기
 • 점수경기 • 크로스 컨트리

제형프로그램
 • 말체시연 이벤트 • 트릭아트 포토존
 • 애니메이션 체험 • 체험승마이벤트

분형예술공연



영천대마 청소년 승마신 대회
2017. 9. 16(토) 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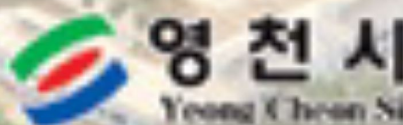


영천대마 포니음악 심회
2017. 9. 16(토) 13:00



조선통신사의 영천마상재(馬上才)공연
2017. 9. 16(토) 14:30

주 최 : 영천시
 주 관 : 영천시 승마협회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한국마사회, 대한승마협회



영 천 시
Yeongcheon Si